# 희망을 죽여야 소망이 산다

## (사무엘상 23:1~29)

15.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16.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17.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18.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희망을 죽여야 소망이 산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희망을 죽여야 소망이 산다'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큰 구분 없이 사용하는데 사전적으로 보면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희망'은 앞일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라는 것인데 '앞으로'라는 말에 희망의 요점이 있습니다. '소망'은 어떤 일을 바람 혹은 바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바라는 것은 미래를 향한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소망은 욕구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희망은 그 욕구를 가지고 앞을 바라보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희망과 소망을 'hop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전13: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한국어는 참 번역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과 구분해서 소망을 사용한 점인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소망은 희망을 죽이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이제 1년 10개월 뒤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각 당의 대선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가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가 사용하는 단어의 세계에서 대통령을 뽑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뽑을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에게 예외 없이 피부에 닿고 애용되고 있는 단어는 역시 희망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랑과 평화도 이상적인 개념이지만 이러한 단어들조차도 희망의 형태 안에서 의

미를 갖고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화를 희망하고 부자 됨을 희망하는 것처럼 희망이라는 단어만큼 대통령다운 단어가 어디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이 그렇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단어의 대통령, 개념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우선적인 힘을 주기 때문이고, 희망은 어떤 모험이라도 감행하는 용기를 갖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눌려있을지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우선적인 힘이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즉 희망은 언제나 더 나은 미래를 예상하고 기대하는 마음인데,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등대처럼 지금의 행위를 인도하고 마음의 용기를 북돋으면서 일으켜 세웁니다.
중국의 사상가 양계초(梁啓超)는 “희망은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고 문명인과 야만인을 나누는 지표로 보았고, 문명한 인간만이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보며 지금 해야 될 행위를 결정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잘라서 말하자면 희망은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안내 표지판이기도 합니다. 희망이 있어야 절망 속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은 마약하는 사람들이 약 기운이 다 떨어지면 온몸을 사시나무 떨 듯이 떨다가 마약을 맞아야만 진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희망은 인류 최대의 마약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절망으로 가면서도 참 절망에 대해 마비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자살을 막는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더 큰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는 희망과 성경의 복음에서 주어진 소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희망은 수평적으로 앞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끝까지 가면 어딘가에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 똑같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때에 어느 순간이 되면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미래적인 점에서는 희망과 같지만 복음 안에서의 미래는 수평적으로 앞에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간은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예언되고, 오셨으며, 승천하신 뒤에 다시 오실 것으로 흐르는데, 이 시간의 질을 결정하는 예수님의 동선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만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오실 것이지만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될 곳은 바로 지금 내가 서있는 곳 내 머리 위의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오실 분을 향하여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수평적 차원에서 앞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실 예수님이 시간의 질을 결정하시므로 그 분이 지금 계시는 내 머리 위의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신앙인들의 미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한 희망은 내 욕망으로부터 유

래하지만 소망은 내 바깥의 약속에서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망과 소망은 무관하지 않아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한 소망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희망이 소망을 죽이기 때문에 소망을 살리기 위해서는 희망을 죽여야만 하는데, 도대체 오늘 본문이 무엇이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다윗이 헤렛 수풀에서 피신생활을 하던 도중의 일입니다. 블레셋과의 접경에 있었던 그일라 성읍의 추수 때에 블레셋이 침입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하나님께 두 번씩이나 묻고 그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려고 하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의 손에 넘기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일라로부터 미리 피신하여 십 광야에 머물 때에 요나단이 아버지 몰래 와서 도피생활로 인해 곤혹스러운 상황을 날마다 겪고 고통 속에 있었던 다윗에게 사랑과 우정의 격려의 말을 합니다.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어려운 상황에 있던 다윗에게 요나단이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왕이 될 것이 틀림없다며 격려하며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의 문학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 말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이 말을 듣고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반드시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잘 참고 넘어가야해'라고 했다면 이것은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고, 인간적으로도 다윗은 우정과 사랑이 없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왕권을 이어받을 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 거부는 못할지라도 자신보다도 요나단이 더 왕의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겼던 것인데, 요나단은 왕궁에서 자랐고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의 등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16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라는 말을 하는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라는 뜻이고, 이 말은 '하나님을 가지게 함으로서 도피생활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강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사용하시는데 왕권을 이어받을 자가 왕권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닫은 것은, 하나님으로 차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욕구가 없었던 것과 같이, 그 요나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 앞에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희망 속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가져서 왕위를 떨쳐버렸던 것처럼 다윗도 마음에서 왕위라는 희망을 떨쳐버리고 지금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가짐으로서 이 도피상황을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여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안 되면 많은 경우에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충성봉사하면 언젠가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탄의 사자의 말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것을 희망하다가 잘 되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안 되는 지금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왕위에 오르고 사업이 잘 되어도 사울처럼 하나님보다 왕위를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끌어들이지 않게 됩니다. 사업이 안 될 때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한 사업을 잘 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서 왕위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지금 내가 완전히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위에 지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이 성령을 통해 교제하고 계시는 것처럼 나도 성령님을 통해 주님과 하나님을 갖게 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 이 상황, 이 환경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완전히 만족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소망은 생기게 됩니다. 소망은 앞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위로부터 지금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일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등의 희망을 갖고 있는 한 지옥이 기다리는 나락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을 가진 자가 자살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루어질 앞날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절망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이 가는 것이고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잘 될 때를 희망하며 참고 견디는 것은 사업이 잘 되면 내게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만족이라고 믿으며, 주님만이 나를 기쁨과 만족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가질 수 있는지 오늘 읽은 본문의 앞뒤로 나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도우려 할 때에 하나님께 묻고, 그일라의 배반을 알았을 때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분노하여 그일라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한 마디 원망도 없이 도망을 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갖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돕고 싶은 내 마음에 대해서 죽고 그 뜻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일라가 배반하자 은혜를 원수로 갚은 행동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 죽고 그들을 악하다고 판단하는 마음도 죽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죽어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상태로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소망이 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제관계까지 동원하십니다. 십 광야에서 마온 광야로 간 다윗을 사울이 거의 포위하게 되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음을 알게 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회군하게 되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국제관계를 통해서도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내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실감하는 만큼 하나님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마음속으로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었느냐?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안에서 결정하신 일은 국제관계를 동원해서라도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행동하시고 섭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크기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제관계 뿐만이 아니라 삼라만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전달되는 십자가사건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 독생자를 통해서 만물이 지은바 되었으므로 만물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생활화하되, 진짜 예수님을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점점 실감되는 만큼 하나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돈도 없고, 몸에 병이 나고,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될지라도 지금 이미 완전한 평강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수평적 신앙선상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희망하면 이 소망은 묻혀버리고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살게 할 뿐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으로 이끌 것이지만, 희망은 지금을 불만으로 가득한 지옥을 살게 하고 궁극적으로 지옥으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판단을 중지하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삶을 돌이키며, 주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거신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를 날마다 더욱 더 실감함으로 지금 완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